

<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토론에 대한 제작진 입장 >

먼저 엄경철의 심야토론이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올해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7군데 대부분의 곳에서 반대 단체와 충돌이 일어난 현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기획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주제 선정과 기획의도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작진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6월 16일 첫 방송 이후 20여 차례 방송을 제작해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예멘 난민, 한국사회에 던져진 커다란 질문', '미투와 법'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었고,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10월 21일 광주에서의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있었지만, 9월 초 인천의 경우에는 심한 충돌로 인해 행사 자체가 무산됐고, 9월 29일의 제주 지역에서도 축제가 30분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성 소수자'가 삭제되면서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었고, 지금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도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로 인해 성 소수자를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논쟁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에서의 논쟁 등을 고려할 때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입니다.

○ 존재와 인권 토론에 대한 지적

제목에서도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으로 명시했듯이 존재에 대한 찬반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 문제, 차별금지법, 동성혼 허용 등 법과 제도라는 논의로 확장한다는 지향점을 갖고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첫 질문의 취지도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나타난 반대 단체의 폭력과 충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진행자가 성 소수자에 대한 강력한 억압들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론화를 좀 더 진전시키고 성 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로 토론을 끌어가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패널 선정의 문제

패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패널이 없느냐의 문제는 제작진에게 던져진 큰 숙제이자 고민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가이자 퀴어문화축제에도 참여를 했었고,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 메시지 전달력을 갖춘 대중정치인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탁월한 논객입니다. 기독교계의 혐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방송에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혐오를 적극 비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칩니다.

생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 소수자가 직접 출연해서 당사자로서 직접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뛰어난 언변과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검증된 패널이 더 설득력 있게 토론할 수도 있고,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교수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좋은 패널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정 패널의 신분과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은 입법 과제로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의 토론 참여를 추진하게 됐고, 이언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나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법 등 법률전문가로서 과거 심야토론에도 몇 차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에서 특정 인사의 원천적 배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독교계라고 특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과 차별금지법이 토론 주제라는 점에서 법조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의 역할과 팩트 체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 문제는 제작진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영역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수많은 논거들을 10~20분 이내에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론 패널이 해외 사례를 예로 들 경우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언론보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과 당시 상황, 배경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선부른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에게 논의의 큰 줄기와 방향이 아니라 특정 패널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판정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칫 편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귀어문화축제 사진을 이용하겠다는 이연주 의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이 돼서 진행자가 방송에서의 활용을 제지했지만, 생방송 중의 발언은 패널간의 토론을 통해서 거르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다른 토론자의 혐오 표현과 팩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해 좀 더 민감한 대처가 있었어야 했는데, 성 소수자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방송에서의 혐오 표현과 인권 보호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제작진은 과정상의 미흡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권보호 준칙과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갖고 출발했으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좀 더 부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작진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패널의 혐오와 차별 발언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필요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여러 차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팩트 체크에 좀 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적하신 팩트 체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방송 중에 과한 부분이나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패널의 적절성 문제, 혐오와 편견이 차별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토론 주제와 패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염려를 안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없는 혐오의 문제라는 지적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함에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 존재 및 인권과 표현의 자유

지적하신 대로 제작진도 표현의 자유가 인권에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도 인권의 존중을 적시하고 있고, 제작진도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론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쿼어문화축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대 단체들과의 충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으로 주제를 명시한 것처럼 혐오와 차별 문제, 차별금지법, 동성혼 허용 등 법과 제도적 차원의 논의로 지향점을 갖고 토론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 인권 문제를 다룰 때의 기준

인권 문제는 중립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등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의로 출발했고,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패널 선정과 국민 패널의 기계적 중립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토론하게 될 경우 결론을 내려놓은 일종의 계몽식 방송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면하고 토론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폭력과 충돌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의 역할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회자에게 토론의 맥락과 논의 방향이 아닌 특정 패널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판정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명백한 경우가 아니

라면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발언을 자주 제지하게 될 경우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자칫 편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고려해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자 섭외와 관련한 확인

출연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를 고려해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금태섭 의원과 이언주 의원을 섭외하게 됐고,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기독교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해온 지명도 있는 논객이라는 점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라는 점에서 섭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두 출연자의 경우 사전 취재 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나타난 반대 단체의 폭력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